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4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0. 7. 30(금), 14:00~16:1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9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공지사항 및 투표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 목 차

## 【심의사항】

- 1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 【보고사항】

- 1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등재신청 사전자문」 추진 보고



# 심 의 사 항



## 1.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 가. 제안사항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가야고분군」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김해·함안 가야고분군」과 「고령 대가야 고분군」으로 각각 등록되었으며, 2015년 3월 우선등재 목록 선정 당시 두 잠정목록을 통합해서 추진하기로 함. 2019년 1월 현재와 같은 7개 고분군을 포함하는 「가야고분군」으로 잠정목록을 수정함.
- 2017년 12월의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 신청 후 여러 회 심의를 거쳐 2019년 3월 <조건부 가결>되었다가, 2020년 5월 조건부를 해소하고,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 되었음
- 이에, '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등재신청 대상' 선정 여부에 대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 다. 대상유산 및 진행경과

- 신청자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 대상유산 : 「가야고분군」(7개 지역 고분군)
  - 구성유산 :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 유네스코에 「김해·함안 말이산 가야고분군」,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잠정목록 등록('13.12월)
  - 유네스코에 「가야고분군」 7개 유산을 포함하는 잠정목록 등록('19.1.28.)
- 문화재위원회 심의 경과
  - 2015년도 본 위원회 제1차 회의(2015.3.10.) [우선등재 추진대상] / <조건부 가결>
    - 대상 : 3개 지역 고분군(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

- 해당 지자체 등 관련 기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조건
- 2017년도 본 위원회 제5차 회의(2017.12.15.) [등재신청후보] / <보류>
  - 완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산들을 추가할 것
  - OUV 보완, 신청기준 재 서술, 국내외 비교연구 심화, 완전성 재서술, 보존관리계획 구체화 등 등재신청서에 대한 전반적 보완 검토
- 2018년도 본 위원회 제4차 회의(2018.12.21.) [등재신청후보] / <보류>
  - 대상 : 7개 지역 고분군
  - 전문가 검토의견을 보완하여 위원회에서 추후 재심의함(3월 이내)
- 2019년도 본 위원회 제2차 회의(2019.3.21.) [등재신청후보] / <조건부 가결>
  - 역사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팀 보강 및 관련 전문가 참여, 비교연구 재작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산에서의 구체적 근거 제시
- 2019년도 본 위원회 제3차 회의(2019.7.30.) [등재신청후보] / <조건부 가결 유자>
- 2020년도 본 위원회 제3차 회의(2020.5.22.) [등재신청후보] / <등재신청후보 선정>

#### 라. 심의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등재신청 후보 선정시 제시된 조건에 대한 보완 여부를 심의
- 해당유산의 추진상황과 더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빙하는 신청기준, 완전성, 보호관리 체계 및 등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마. 등재신청서 주요 내용(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 \* 상세 내용은 추진단 설명자료(별도) 참조
- 1) 유산 설명
  - \* 등재신청서 147p, 「3.3. 탁월한 보편적 가치 기술문」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 (iii) :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가야고분군’은 한반도에서 고대국가 성립 이전의 연맹 단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가야연맹(1~6세기)의 정치체제와 매장문화를 증거한다. 신창유산은 가야 각 지역의 중심지 인근 구릉지에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밀집하여 조성되었으며, 가야연맹의 가장 중요한 기념물로 남아있다. 이는 율령 등 중국식 중앙집권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한반도 고대의 문명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유적이다.

신창유산은 고분군의 입지, 묘제, 부장품을 통해 가야연맹의 정치체제와 매장문화를 보여주며, 개별적인 정치권력을 보유한 지배층의 존재를 알려주는 철제무기류와 마구류, 비교적 대등한 수준의 묘제와 부장품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맹 내의 수평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각 고분군의 묘제와 부장품은 세부양식, 교역품의 종류 등에 인접지역과의 혹은 다른 가야세력과 관계를 반영하고 있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개별적인 가야 세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맹을 형성하였음을 증거한다.

#### ○ 간략한 종합

- ‘가야고분군’은 한반도 남부에서 1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존재하였던 ‘가야’의 7개 고분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이 유산은 가장 이른 시기의 유산인 대성동고분군(1~5세기)을 포함하여 말미산고분군(1~6세기), 옥전고분군(4~6세기), 지산동고분군(5~6세기), 송학동고분군(5~6세기),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5~6세기), 교동과 송현동고분군(5~6세기)이다. 선정된 7개의 고분군은 묘제와 부장품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가야의 7개 권역을 대표하는 고분군으로, 고분군의 순서는 고분군 내 중심 고분의 조성시기를 따랐다. 7개의 고분군은 각 가야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지배층의 무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조성된 곳으로, 연맹을 구성했던 가야 세력들의 공통성과 지역적 차이를 드러내며, 전체로서 가야연맹의 정치체제와 매장문화를 예증한다.
- 신창유산은 고대 한반도에서 중앙집권화된 고대국가로 발전하기 이전 존재하였던 연맹단계의 정치체제와 매장문화를 보여주는 가장 독보적인 증거이다. 이는 율령 등 중국식 중앙집권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한반도 고대의 문명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유적이다. 가야의 연맹을 구성했던 여러 정치세력은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고 각 지역의 중심지를 기반으로 서로 연계하거나 경쟁하며 성장해 나갔다. 가야의 지리적 범위는 가야식 묘제와 가야토기로 대표되는 부장품으로 파악되며, 현재까지 780여 군데의 고분군이 알려져 있다.
- 신창유산의 주요 속성은 고분군의 입지, 묘제, 부장품이다. ‘가야고분군’은 각 지역 중심지에서 잘 바라보이는 높은 지대에 조성되어 지배층의 지위와 권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고분군의 단위구역은 대형고분을 주변의 중소형 고분이 둘러싸는 방식으로 배치되지만, 각각의 묘역을 분리하지 않고

연접하여 지배층의 무덤이 지속적으로 조성되어 구릉지와 일체화된 경관을 이룬다. 매장부의 평면이 세장한 가야식 묘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세부 형식은 각 가야 권역별로 차이가 있어 가야연맹을 구성한 각 가야의 세력범위를 알려준다. 또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개별적인 권력을 보유한 지배층의 존재를 보여주는 철제무기류와 마구류, 비교적 대등한 수준의 위세품, 각 고분군별로 지역 차원의 대외관계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교역품이 부장되고, 순장의 흔적이 남아있어 중앙집권적 고대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연맹 체계를 보여준다.

- 대성동고분군은 금관가야의 중심지에 위치한다. 구릉지에 고분을 군집하고 위계에 따라 고분을 배치하지만 봉분을 크게 조성하지 않는 초기 모습(3세기)이 나타난다. 또한 공통된 양식으로서 가야 연맹의 전체 권역을 알 수 있는 지표인 가야식 묘제와 가야토기의 이른 시기의 유형을 보여준다. 대도·갑주·마구 등 다양한 부장품과 순장을 통해 권력을 과시하는 연맹의 특성이 처음으로 드러나며, 규격화된 형태로 출토된 덩이쇠는 제철을 기반으로 성장한 가야연맹의 모습을 증거한다.
- 말이산고분군은 아라가야의 중심지에 위치한다. 고분군 중 가장 긴 시간(1~6세기)동안 연속적으로 고분이 조성되어,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중심지를 기반으로 점차 세력을 성장시키며 발전했던 연맹의 구성을 보여준다. 또한 묘제의 시대별 변화과정을 보여줄 뿐 아니라, 봉토분이 위치한 대규모 구릉지가 기념비적인 경관으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구릉지에 다양한 성질의 점토를 교대로 쌓아올려 원형의 봉분을 축조하는 가야고분의 독창적인 축조기술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 옥전고분군은 대규모 중심지가 아닌, 강을 따라 중소규모로 분포하는 다라국의 고분군 중 가장 위계가 높은 고분군이다. 세장한 가야식 목곽묘의 구조가 5세기 후반까지 이어지며 연맹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한편, 하나의 고분군 내에 다양한 매장시설이 공존하며, 부장품의 유래 또한 다양하다. 지리적인 입지를 활용하여 자율적 권한을 가지고 주변국과 교류했던 개별세력의 자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용과 봉황으로 장식된 대도는 한반도 금공기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 지산동고분군은 대가야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5~6세기에 집중적으로 대형 고분이 조성되어 높은 구릉지 위에 고분군이 밀집한 장관을 이루고 있어, 무덤을 통해 세력을 과시하고자 했던 연맹 세력의 최전성기를 보여준다. 금동관, 대가야식 금공품과 무기, 마구의 확산은 대가야가 연맹의 중심세력이었음을 입증한다. 순장 인골은 그들의 신분이나 역할을 나타내는 유물과 함께 출토되어 당시의 신분체계를 알려주며 왕권을 중심으로 일원화되기 이전의 연맹 체계를 보여준다.
- 송학동고분군은 소가야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구릉지가 발달하지 않은 지리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낮은 언덕 위에 대형 고분과 그 주변의 소형 고분이 군집되어 있어 가야 고분의 특성을 보인다. 고분을 높고 크게 쌓아올리기 위해 다른 지역과는 달리 백제나 일본의 고분축조기술을 수용하고 있어, 연

맹의 일원이면서도 해상 교역을 통해 주변국과 활발히 교류했던 개방적인 모습과 자율성을 보여준다. 고분에 부장된 교역품도 이러한 성격을 뒷받침한다.

-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기문국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전체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가야연맹의 전성기인 5세기에 백제 인접 지역까지 그 세력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대규모 봉토분이 정상부에 밀집하는 전형적인 '가야고분군'의 모습이지만, 청동거울 등 부장품 중 백제계 유물이 많아 백제와의 교역 관계가 활발했던 지역적 특징을 보여준다.
-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비화가야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라와 가까운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연맹 세력의 확장을 보여준다. 구릉지에 대형 봉토분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가야 고분군의 특성이 드러나며, 대형고분을 주변의 중소형고분이 둘러싸는 방식으로 배치되어 구릉지와 일체화된 경관을 이룬다. 묘제는 가야와 인근 지역 묘제의 특성이 반영된 가야식 석곽묘가 축조되었다. 부장품은 인접한 정치세력과 유대관계를 통해 문화의 융합에 기여했던 모습이 드러난다.

#### ○ 완전성

- 신청유산은 가야연맹을 구성한 7개 가야의 모습을 증명하는 11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7개의 고분군이다. 각 구성요소는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며, 개별적으로 7개 가야를 대표하는 고분군으로서 완전성을 갖추고 있다.
-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현재까지 양호한 보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고분군의 입지, 묘제, 부장품을 통해 입증된다. 구릉지나 산지에 조성된 고분군은 현재까지 그 입지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 가야식 묘제는 7개의 고분군에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으며, 고분의 부장품은 7개 고분군에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고,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은 국가기관(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 신청유산 중 일부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인공적인 개발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도의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예상되는 위해는 거의 없다. 간혹 나무뿌리 등으로 고분이 함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체계 아래 공인받은 전문 인력에 의해 정비가 이루어지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감독을 거쳐 관리되고 있다.
- 신청유산은 고분군의 특성을 대표하기에 충분한 범위의 공간을 법적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개발 등 부정적 영향으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고, 고분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 진정성

- 개별 고분은 고고학 발굴조사를 통해 축조 당시의 매장시설의 형태와 구조,

디자인이 확인되었다. 목관묘와 목곽묘는 세장방향으로 굴착된 범위와 내부에 설치한 목관, 목곽의 구조가 대부분 밝혀졌다. 석곽묘와 석실묘는 흙과 돌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구조물로 대부분 지하에 남아 있어 구성요소들은 원래의 형태와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다. 지상에 축조된 봉분은 발굴조사를 통해 축조 당시의 높이와 범위, 축조과정을 파악하였다. 또한 고분 가장자리를 따라 설치된 보호석이나 성토범위 확인을 통해 봉분의 형태가 원형 또는 타원형임이 밝혀졌다. 일부 봉분의 경우 나무뿌리 등으로 함몰된 사례가 있어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하였다. ‘가야고분군’에는 매장 당시의 토기와 철기, 장신구 등이 부장되어 있어 유산의 진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신청유산은 발굴조사 후 복원된 일부 고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원래대로 보존되고 있어 자재와 구성물질의 변동은 없다. 학술적인 목적으로 발굴된 고분은 필요한 기록을 남긴 이후에는 복토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다. 복토는 고분군 발굴조사에서 확보된 흙과 돌을 이용하였고 부족할 경우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특성을 가진 재료를 엄선하여 사용하였다. 석곽묘와 석실묘의 보수에도 당시에 사용된 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질의 석재를 사용하고 있다.
- 구릉지의 능선을 따라 고분을 축조하는 기술은 ‘가야고분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고분의 성토기술을 고분의 복원, 정비에 적용하고 있다. 7개의 고분군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모든 보수와 정비는 발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국가의 공식 인증을 받은 문화재 보수기술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문화재청과 지방정부의 감독 아래 전문 기술자들이 보수를 진행한다.
- 신청유산은 처음 조성된 이후 위치가 옮겨지지 않고, 그 구조를 잘 유지하고 있어 진정성이 높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주변 환경이 변하고, 고분군 주변지 일부가 변형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고분군의 입지, 묘제와 부장품은 고분군의 탁월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

#### 바. 전문가 검토 의견

- 회의일시 : 2020.7.28.(화) 16:00, ○○○ 회의실(○○○ 내)
- 검토자 :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 검토의견(요약)

- 등재신청서의 양식에 맞춰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가야고분군의 OUV와 속성을 비교적 일관성 있게 제시하였음

- 가야고분군은 고분군의 입지, 묘제, 부장품 등을 통해 중국식 중앙집권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한반도에 존재한 가야연맹의 정치체제와 매장문화를 증거한다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였음.
-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등재기준(iii)등에 부합한 내용과 완전성과 진정성, 동아시아의 유사 유산과의 비교를 통해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도출하여 완성도를 높였으며,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제반 사항들을 비교적 논리적으로 서술하였음
- 현재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평이한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는 부분을 가치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동아시아 유사 유산과의 비교 서술 부분에서도 일반론적인 서술보다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도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 (등재기준 서술 및 종합 요약) '가장 중요하다' '독보적이다' 등 단정적인 표현은 신중히 검토하여, 순화가 필요함. 또한 울령반포나 관북 등의 정비는 고대국가의 성장과 관련되기는 하나, 보다 세계유산으로서의 보편성에 기반하여 서술되어야 함.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가야에 대한 기본 지식과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는 고고학 내지는 고대사 전공자를 별도의 편집자로 두어 보고서의 내용을 재편집해보는 방식을 추천하는 바임

- (신청유산의 설명) 역사 및 발전 부분은 유산이 현재까지 유지된 연혁을 서술하는 부분이므로 수정이 필요함. 전반적으로 신청서에 표현된 용어의 개념(연맹, 세력, 개별적인 가야 세력, 고분, 무덤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가야고분군'이 동아시아 내지는 한반도의 국가발전단계에서 '연맹'이라는 정치 체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7개 가야의 개별 유산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정작 중요한 '연맹'을 드러낼 수 있는 특징이나 역사적 의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등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개별 유산의 현상적인 설명으로 그치고 있음

- (비교연구) 7개 신청 유산의 선정논리의 전제인 7개 문화권(7개 가야)에 대한 제시가 부족함. 7개 가야의 공통점과 특수성을 각각 설명하고 각 가야의 고분군 중 7개 고분군이 가장 독보적이라는 서술이 보완되어야 함. 국내 및 국제 문화유산과의 비교연구에서도 연맹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의미 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야고분군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이 되어야 함

## 사. 소관부서 검토 의견

- 전반적으로 등재신청서로서 논리적 구성과 내용의 분량, 배치 등이 개선되었으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은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 가야의 고분군 속성을 입지, 묘제, 부장품으로 정리하여 서술하고, 연속유산을 구성하는 7개의 고분군이 앞에 제시된 3가지 속성을 통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판단됨. 가야고분군이 중국식 중앙집권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한반도에 존재했던 가야연맹의 정치체제와 매장문화를 증거한다는 OUV를 중심으로, 서술이 정돈되었음.
  - 한반도에 도입된 고대 중앙집권국가 체제 이전의 연맹의 양상을 증거하는 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이전에 비해 문명권적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사라진 문명에 대한 유일하거나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등재기준(iii)에 더욱 부합하도록 수정되었음. 삼국 등 여타국가도 연맹 혹은 유사한 단계를 거쳤음을 고려한다면, 가야가 연맹단계를 거친 유일한 정치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현재 등재신청을 위해 선정한 가야고분군이 집합적으로(시대적, 지리적 분포) 다른 국가의 유산에 비해 연맹단계를 더욱 두드러지게 증거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됨.
- 다만, 제시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청서의 논리적 기술과 각 장의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탁월한 보편적 가치 기술문에서 문단간 논리적 구성, 세부 근거, 각 7개 고분군의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연맹의 중요성과 연맹이라는 정치적 체계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야 하며, 등재신청서상 연맹의 측면에서 연속유산의 분포 범위와 연맹내에서의 역할, 세력의 차이에서 기인한 유산 규모의 차이 등 유산의 현황과 의미에 대한 서술이 보완되어야 함
  - 유산에 대한 설명은 가야사에 대한 내용을 줄이고, 연맹의 측면에서 가야의 전개과정, 중요성 등이 드러나게 재서술되어야 함. 각 유산의 설명에서도 지나치게 상세한 유물에 대한 설명, 가야의 우수성 위주의 서술, 양식적인 특이성 위주의 서술은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역사 및 발전 부분은 현재까지의 연혁을 서술하는 것으로, 보존관리계획 등 향후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여야 함.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필요 없는 내용을 삭제하여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였으나 지속적으로 윤문할 필요가 있음
  - 비교연구는 비교대상에 대한 압축, 전체 틀은 개선되었으나, 근거에 대한 구체성을 높이고, 논리를 다듬을 필요가 있음. 아직 평면적으로 제시된 비교연구에 대해서는 가야고분군의 OUV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이 요구됨
- 추진단에서 제출한 보완내용, 전문가 검토회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아. 의결사항

- 보류함. / 9월초 차기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함
  - 출석 9명 / 원안 가결 9명

# 보 고 사 항



## 1.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등재신청 사전자문」 추진 보고

### 가. 보고사항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71항, 제122항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공모하는 「등재신청 사전자문」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 나. 보고사유

- '19년 3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공모·시행하는 사전 자문 요청 과정 (Upstream Advice, 이하 '사전자문')에 충남 내포 권역의 천주교 유적군을 신청한 바 있으며, '20년 5월, 해당 유산을 '사전자문 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을 알려옴
- 이에 그간의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 다. 사업개요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2015년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개정시 '사전자문'을 공식적인 절차로 추가하였음

- \*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잠정목록 개발 등 등재 추진 단계에서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에 사전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 \* 자문은 세계유산 등재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 제출 전에 진행하는 자문·협의·분석 등 자문기구(ICOMOS, IUCN)의 자문 일체를 말함
- \* 사전 대비 없이 세계유산 평가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 등재신청 과정에서 가장 이른 단계, 즉 당사국이 잠정목록을 준비하거나 수정하는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등재 잠재력이 있는 미래의 유산(잠정목록 기 등록 유산)도 대상으로 함

- 세계유산협약 가입국을 대상으로 매년 2회(3.31 / 10.31) 접수하며, 등재신청 우선순위 규정에 따라 대상 유산을 선정하여 진행
  - 201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10개 유산이 선택되어 자문 과정 진행
  - 2018년부터 2년간 시범적으로 연간 최대 10건 적용
  - 당사국이 신청하더라도 전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라. 추진경과

- (~'19.3.11.) 지자체 대상 추진 희망 유산 접수, 선정 심사
- ('19.3.12.) 추진 대상 선정 통보(문화재청 → 충남도)
  - 선정 유산명(가칭) : 충남 내포 권역의 천주교 유산군 / 잠정목록 등록 준비 중
- ('19.3.29.) 사전자문 신청서 제출(문화재청 → 외교부 → 세계유산센터)
- ('20.5.28.) 사전자문 추진 대상 선정(이코모스)
- ('20.6.24.) 문화재청 잠정목록 연구지원 대상사업 선정(국비 50백만원 지원)
- ('20.6.10.) 사전자문 추진 관련 화상 업무 협의(이코모스 & 문화재청)

## 마. 향후 계획

- ('20.8월) 사전자문 추진 계약(이코모스 & 문화재청)
- ('20.9월~'21.4월) 사전자문 진행
- ('21.4월) 사전자문 보고서 제출(예정) (이코모스 → 문화재청)
  - ※현장실사는 코로나-19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행 여부 별도 협의

## 바. 의결사항

- 원안 접수
  - 출석 9명 / 원안 가결 9명